

News

전세대출도 조이나...“무주택 서민들 갈 곳은 어디”

데일리안

금융당국,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전세대출 관리방안 공개 예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를 현재의 80~90% 수준에서 최대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 중 부동산 전문가들, 전세대출은 용도 뚜렷 및 실거래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수요자 피해 우려... 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

이게 웬 날벼락...네이버·카카오 줄줄이 비상 걸렸다

한국경제

금융위와 금감원, 일부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는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 금융 플랫폼의 타사 펀드 및 연금 판매 행위 사실상 어려워져... 금소법상 금융업자는 직접판매업, 판매 대리 및 중개업, 자문업 등으로 구분... 금융업계는 소비자 혼선 우려하지만 금융당국은 2월 이후 충분한 시간 있다고 언급

'빚폭탄 돌려막기' 언제까지? ...당국vs은행, 이자 유예 '신경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6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 우려 중... 이자까지 갚지 못하는 상황 방지할 경우 대출 부실 커질 우려 존재하기 때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도 못 갚은 부실기업은 34.5%로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 기록...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대출금리 인상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

대출은 '뚝', 예금 '쑥'...저축銀 역마진 우려 점증

데일리안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37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15.71%로 집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하향 조정은 현재 시장과 상반되는 흐름 건전성 관리지표 LR을 100%로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존재... 추가 금리이나 경쟁 더해지면 수익 악화, 역마진 가능성 우려

DB손보, 핀테크와 악연...카카오 전용 암호해독 판매 중단

e대한경제

DB손보가 출시한 카카오페이 전용 암호해독이 가입 절차 논란으로 판매 중단... 가입 당시 KP보험서비스가 계약자인 단체보험이나 다음날 개인계약으로 전환 올해 초 토스와의 백신 보험 판매 건도 배타적 사용권 침해 소지로 논란... 핀테크와의 협력이 연이어 물거품

보험료 좀더 싼곳으로 기업 단체실손 갈아탔다

파이낸셜뉴스

5개사에 가입한 단체 실손,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10,517건, 337만 5,037명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 최근 4세대 개인 실손이 출시되면서 갈아탈지 여부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 상위 보험사 대신 저렴한 보험료 제시한 중소형 보험사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

주식계좌 5,000만 시대...대체거래소, 연내 설립 신청

뉴스1

금투업계,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 거래소 설립에 착수... 금투협과 증권사 6개사로 구성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설립검토위원회, 연내 ATS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 매매 체결 서비스 경쟁을 통한 자본시장 질적 도약에 도움... 다만 부산 지역 민심은 넘어야 할 산... 금융당국 신중한 모습

라임펀드 최대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금감원 분쟁조정 올해 넘기나

뉴스토마토

코로나19 상황과 검사 일정에 따라 분쟁조정 일정 지연 중... 연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신한금융투자 건의 경우, 판매규모가 3,248억 원으로 가장 크고 지속 판매 혐의 등 쟁점이 복잡해 검사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